

# 雲人 宋鴻의 詩文에 나타난 시대의식과 사회활동\*

장선희\*\*

## <차 례>

1. 序 言
2. 雲人 宋鴻의 시대의식과 사회활동
3. 雲人 宋鴻의 詩와 文
4. 結 語

## <국문초록>

본 논고는 근대전환기에 생존하였던 봉건 지식인인 운인(雲人) 송홍(宋鴻)의 생애를 중심으로 근대전환기에 생존했던 봉건 지식인-유학자들이 시대적 격변기에 어떤 시대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였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운인 송홍(1872-1949)은 근대전환기에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유학자였다. 운인은 봉건적 한문교육을 받은 봉건 지식인이었지만 입헌군주제의 채택을 주장하고 서구의 신교육을 받아들여지는 교육혁신운동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하고 되찾고자 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활동하였던 改新 儒學者였다.

운인은 자신이 주장하였던 교육혁신운동이 무산되자 1909년 이후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족혼을 잊지 않도록 독려하였던 교육자로서 일생을 바쳤다. 특별히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알려졌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교육자로 평가되고 있다. 운인 송홍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문학계에서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보건대학교

본고에서는 운인 송홍의 詩文을 중심으로 운인의 생애와 활동을 고찰하려고 한다. 이는 운인의 고찰을 통하여서 근대전환기에 봉건지식인들이 어떠한 시대의식과 사회활동을 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일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고를 계기로 하여 운인 송홍이 남긴 詩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근대전환기의 한문학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근대전환기, 운인 송홍, 신교육, 교육혁신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 1. 序 言

연구자는 1860년대부터 1945년까지를 우리나라의 근대로 시대 구분하고 이 시기를 舊時代와 新時代가 교체되는 轉換期라고 규정하고<sup>1)</sup> 이 시기의 漢文學과 漢詩人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 전환기란 그 때까지의 시대와 사회를 유지하여 온 舊문화와 새롭게 유입되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新문화가 공존하면서 갈등과 충돌, 조율과 융합의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전환기는 순조로운 교체기가 아니었다. 근대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서구 문화의 갑작스런 도래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가의 찬탈이라는 극단적이고 강제적인 변화를 요구받던 시기였다. 이러한 극단적 전환기에 생존했던 사람들의 시대의식이나 처세의 방식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처세는 봉건적 전통 문화가 서구적 신문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접합하면서 계승·유지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대 이전 봉건사회의 식자층이면서 지배층이었던

---

1) 장선희, 『韓國 近代의 漢詩 研究 -姜瑋의 詩 活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7.

유학자들의 역사의식과 시대 대응방식은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당시까지 정치·사회·문화를 주도하였던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존립기반이었던 사상 체계와 그 위에 이룩된 정치·사회·문화 체계가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여 나름대로 명분있는 대처와 대응의 방법들을 강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근대전환기에 봉건지식인인 유학자들이 어떻게 시대와 사회를 인식하며 활동하였는가를 고찰해 왔다. 이들 봉건지식인들은 또한 유학자이자 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근대전환기에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雲人 宋鴻(1872~1949)에 대한 고찰이다. 운인 송홍은 1929년 11월에 광주고등보통학교(현재의 광주제일고등학교)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서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확산되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거론된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발발당시 운인이 광주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운인이 재직하였던 광주고등보통학교 졸업생들은 운인을 ‘민족의 스승’<sup>2)</sup>으로 숭앙하고 있으며, 1967년에 광주 제일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좌측에 운인의 동상을 세워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운인이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명백히 하였다. 운인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자료에서도 운인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아버지’, ‘광주고보의 영원한 스승’<sup>3)</sup>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방 후 운인에게 직접 배웠던 사학자 민두기는 운인을 하얀 두루마기에 명주 목도리를 감고 콧물을 닦으면서 국사를 가르치던 모습으로 기억하면서 ‘한말(韓末)에 젊은 유생(儒生)으로서 활발한 애국운동을 전개’<sup>4)</sup>하였던 스승으로 회상하였다.

2)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회,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1920~2003』, 2004. 339-347쪽.

3) 운인송홍선생문집발간위원회, 『운인 송홍(宋鴻)의 사상과 독립정신』 2013.11.

4) 민두기, 「宋鴻 先生의 뜻」, 동아일보 『淸論濁說』 1976.12.22.

역사학계에서 운인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연관되어 연구되는 것과 달리 국문학계에서는 雲人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봉건 지식인 들인 유학자들이 文·史·哲이 통합된 교육을 받아 철학과 역사, 문학에 함께 정통하였으며 그들의 문집 속에는 언제나 詩와 文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雲人 宋鴻의 詩文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고는 운인의 문집 속에 수록된 詩와 文을 중심으로 근대전환기에 생존하였던 운인의 시대의식과 사회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雲人 宋鴻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지금까지는 운인의 문집을 빼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운인이 직접 쓴 글 외의 운인 관련 자료들에서 많은 오류들이 보이는 관계로 운인에 관한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운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본 논고에서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7월에 雲人 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에서 간행한 雲人 宋鴻의 문집인 國譯『雲人遺稿』<sup>5)</sup>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雲人 宋鴻의 시대의식과 사회활동

雲人 宋鴻이 자신이 처했던 근대전환기에 어떤 시대의식과 사회활동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운인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운인의 생애를 알아보기 위한 기본 자료로는『雲人遺稿』에 실려 있는 行狀과 墓表<sup>6)</sup>가 있다. 그러나『雲人遺稿』에 수록되어 있는 行狀과 墓表에도 많은 오류가 보이고 있어 운인이 직접 쓴 詩와 文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和順郡, 2013.7

6)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和順郡, 2013. 214-219쪽.

## 2.1 운인의 성장과정

雲人(1872-1949)의諱는 鴻이요 字는 翼中이며 號는 雲人으로 新平 宋氏의 始祖 自殷의 十四代 孫이다. 1872년 9월 7일 全南 和順郡 道岩面 雲月里에서 부친 睡軒公 容鎭과 모친 羅州 林氏 사이에서 3남 1녀 중 2남으로 출생하였다. 운인은 天性이 孝友하고 資質이 粹美하며 剛直 英明하였고 少時에 매우 뛰어나 모두 將來가 측망되는 神童이라 하였다. 忠孝烈의 三綱은 勿論 五輪을 遵守하는 名家의 傳統을 이어 또한 正直하고 禮儀바르고 勤勉해야 한다는 家訓을 익히며 슬기롭게 자랐다. 운인의 선조는 高祖父인 相龜가 贈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經筵參贊官을 지냈으며 曾祖父인 桓默이 贈嘉善大夫 戶曹參判 兼五衛都總府 副總官을 지냈고 祖父였던 載涵은 通政大夫 折衝將軍 龍驤衛副護軍 知階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집안이다. 운인이 평생동안 正路를 一路邁進하는 次元높은 人生觀을 지니게 된 것은 嚴格한 家訓과 見聞에 基因함이라 하여도 決코 過言이 아니다.

운인은 韓末의 節臣인 淵齋 宋秉璿에게 師事하였다. 淵齋 宋秉璿은 李朝末의 巨儒이며 近思續錄 十條封事文 武溪謾輯을 비롯한 24卷의 遺稿로 有名하며 大司憲까지 지냈고 贈義政文忠公을 사사받았으며 1962년에는 韓民國建國功勞勳章까지 追贈받은 인물이다. 이러한 스승에게 사사받은 운인의 學問은 勿論 絶世의 愛國忠節은 스승인 文忠公을 따랐음은 明若觀火한 것이다.<sup>7)</sup> 그렇지만 行狀과 墓表를 비롯한 운인의 생애를 기록한 타인의 기록에서는 운인이 淵齋 宋秉璿에게 사사하였다고 적고 있지만 운인 스스로는 연재에게 사사하였다는 기록을 남긴 적이 없다. 운인이 淵齋 宋秉璿에 대한 글을 남긴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한 桂庭 閔泳煥과 淵齋 宋秉璿을 애도하는 시에서이다.<sup>8)</sup> 이런 사실들로

7)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부록, 214-218쪽<行狀(행장)>, 219쪽. <墓表(묘표)>.

8)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31쪽. <哀閔桂庭泳煥계정 민영

볼 때 운인이 연재 송병선에게 직접 사사하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연재 송병선의 대학자적이고 우국지사로서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추앙하면서 흠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2.2. 운인의 제1차 사회참여활동-上疏·伏閣疏 運動

1904년(甲辰年, 33세) 늦은 봄에 운인은 경성을 구경하기 위해 유람을 떠난다.<sup>9)</sup> 운인이 경성으로 떠나던 때는 1904년 2월 시작한 러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하던 때이며 한편으로는 새롭게 들어오는 신문물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고조되던 때이기도 하다. 운인 역시 새롭게 변모한다는 경성을 구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난 것이다. 늦은 봄에 시작된 운인의 경성 여정은 光州-淳昌-任實-全州-礪山-湖西-錦江-漆原(平澤)-水原-漢江-京城으로 이어졌으며 경성에 도착하기까지는 이십 여일 정도가 소요되었던 듯 하다.

京國如天一解裝  
頻摩繭足踞欹床  
兼旬行役今纔歇  
旅枕春宵恨不長

하늘같은 서울에 행장을 풀고  
평상에 걸터앉아 부르튼 발 매만지네  
스무날의 여행 이제야 겨우 쉬니  
봄밤의 여관 잠 짧은 것이 한이네<sup>10)</sup>

운인이 경성에 들어가서 처음 본 것은 개화 이후 10년 동안에 변모된 모습이었다. 경무대에 올라가 한 눈에 보이는 서울의 정경을 보니 날렵하게 신축된 즐비한 가옥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전깃줄 등으로 보여지는 중흥의 운세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운인은 정동 모퉁이에서 펄럭이고 있는

혼을 애도하며>3수, <哭宋淵齋先生秉璿 연재 송병선을 곡함>4수.

9)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1쪽.<甲辰暮春大擬遊京臨發同研友惜別仍呼二絕 갑진년(1904) 늦은 봄에 서울에서 놀려고 크게 맘먹고 출발할 즈음에 동문 벗과 이별하면서 두 절구를 읊다>

10)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6쪽,<入京師 서울에 들어가서>.

구미열강들의 깃발도 목도하였다.

十年修飾大京師  
 景色非同鎖國時  
 日下雕甍飛萬戶  
 風頭乾電響千絲

십년간 다듬고 꾸민 서울  
 풍경이 쇠국 때와 다르구나  
 햇빛 아래 용마루 만 호가 나를 듯 하고  
 바람 앞에 전깃줄 천 가닥이 울리네

邦家正值中興運  
 帝座高臨上聖姿  
 貞洞一隅惟刺眼  
 飄飄歐米列強旗

나라는 바로 중흥의 운을 만났고  
 임금 자리 드높아 성스러운 자태에 임하였네  
 정동 모퉁이에 다만 눈을 자극하는 것은  
 구미 열강들의 펄럭이는 깃발이라네<sup>11)</sup>

서울에서 놓고자 크게 맘먹고 시작된 운인의 경성 유람은 일본 정부를 등에 업은 일본인들의 무례한 요구와 횡포를 성토했고 반대하는 上訴 운동과 伏閣疏 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일본 정부를 등에 업은 長森藤吉郎이란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의 산림과 하천 부지 황무지 등속의 땅을 전부 50년 기한으로 대부하여 줄 것을 주한 일본공사를 통하여 우리 외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이를 성토했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대규모 군중집회 등을 통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sup>12)</sup>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운인은 5월 경에 前承旨 尹秉, 前郡守 洪弼周, 前承旨 李範昌, 前主事 李沂 等과 함께 뜻을 합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반대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南村의 艸洞이란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리 학자들로 하여금 상소케 하면서 절규하기를 무릇 다섯 차례나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월에 정부는 황무지 개간에 관한 안건을 취소하였다는 공고문을 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흥계에 참가한 죄인이 여전히 정부 중요한 지위에 남아 있으므로, 그 어떤 재화의 발단이 어느 때 다시 폭발이 될는지 알 길이 없다는 의구심으로 7월 그믐께에 운인은 前

11)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6-7쪽.<登景武臺一矚全京 경무대에 올라 서울을 한 눈에 바라보다>.

12) 한규무,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雲人宋鴻의 계몽운동과 민족교육」, 105쪽.

參判 洪鍾榮, 李範昌, 尹興燮과 다른 두 사람을 합한 6명이 상소문을 가지고 대한문 앞에 엮드려 유음(兪音 허락하는 조서)을 내려 줄 것을 간청하는 ‘복합소(伏閣疏)’를 올렸다. 대한문 앞에 엮드린 이들 6인의 시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응답은 ‘너희들이 물러가면 이후에 마땅히 처분하겠다.’는 전지뿐이었고, 오후 4시 경에는 일본 헌병이 총칼을 들고 말을 달려 충돌하며 이들을 체포하고자 달려 들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의분에 차 부르짖으며 항거하였으나 결국 이들 복합상소자들은 일본 헌병에게 납치되어 명동에 있는 일본 헌병 사령부에 갇혔다가 10여 일만에 풀려 나왔다. 이때 올렸다는 복합 상소문<sup>13)</sup>과 당시의 전말을 정리한 서문에 이어 쓴 절구 15수가 문집에 실려 있다.<sup>14)</sup> 이때의 인연으로 하여 운인은 二則堂 尹秉, 紫人 洪弼周, 海鶴 李沂, 滄江 金澤榮, 參判 洪鍾榮 등과 교유하면서 서울에 머무르게 된다.<sup>15)</sup>

### 2.3. 운인의 제2차 사회참여활동- 憲政研究會 참여

1905년(乙巳年, 34세)서울에 있던 운인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문과 그러한 소식들은 모두 일본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믿을 수가 없다는 풍설 속에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자 ‘경성은 바로 우물 속의 하늘 같으니 한 번 나라 밖으로 나가서 천하의 대세를 통찰하지 않을 수 없겠다.’<sup>16)</sup>는 생각으로 상소 운동을

13)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161-166쪽, <伏閣疏>.

14)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7-11쪽.

15)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12-15쪽. <銅峴旅館滯留與友人唱酬多至十餘篇偶於休紙發見之亦幸矣 追記之如左 동현여관에 체류하면서 벗과 주고 받은 시가 많게는 10 여편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휴지에서 발견되니 또한 다행이다. 덧붙여 쓴 것이 아래와 같다>, <尹二則堂乘座上在艸洞 이칙당 운병의 자리에서 (초동에 있음)>, <題洪紫人弼周艸堂 자인 홍필주 초당에 쓰다>, <呈李海鶴沂 海鶴 이기에게 주다>, <呈金滄江澤榮 滄江 김택영에게 주다>, <洪參判鍾榮宅夜飲 參判 홍종영의 집에서 밤에 술을 마시며>.

함께 벌인 承旨 尹秉을 따라 바다를 건너 서쪽을 유람하기로 결의하였다. 동지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도움받은 운인은 2월 초순에 尹秉과 함께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德興丸이라는 火輪船을 타고 청나라로 건너가게 된다. 인천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기차라는 신식 문물을 경험한 운인은 신 문물에 감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창제하기 싫어하는 선비들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는 심회를 <汽車行기차행>이라는 絶句 4수로 나타내었다.

京發仁川向 車飛汽笛鳴 轟轟八十里 不滿片時行	서울을 출발하여 인천을 향하니 기차가 날자 기적이 울린다 기적소리 뻑~뻑 팔십 리를 잠시도 못되어 가는구나
誰勑火輪制 自西轉渡東 島夷先壟斷 日攫萬千銅	누가 증기 기차를 만들었는가 서양에서 점차 동양으로 건너왔네 섬오랑캐가 먼저 독차지하여 날마다 천만금을 훔치는구나
財爲人血脈 港是國咽喉 目下輸他管 我民寧不羞	재물은 사람의 혈맥이요 항구는 나라의 목구멍이네 눈 아래 수송을 저들이 관리하니 우리 민족이 어찌 부끄럽지 않으랴
最恨吾儒習 全然厭撻新 從茲加猛省 着個發明眞	가장 한스러운 건 우리 선비의 습관이 새 것 창제하는 것을 전연 싫어하는 것이네 이제부터 모질게 반성하여 저 발명품의 진가에 눈을 뜨세나 <sup>17)</sup>

인천에서 德興丸이라는 火輪船을 타고 시작된 운인의 청나라 기행은 仁川-芝罘(烟台)-太沽(塘沽)-天津에 이르게 되고 天津에서 수십 일을 체

16)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16쪽.

17)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16-17쪽.

류하였다. 천진에 머물면서 운인은 전에 조선에 들어와 갑신정변을 평정하였던 袁世凱를 운병의 주선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천진에서 운인이 얻었던 가장 큰 성과는 운병과 함께 그곳의 신문사인 대공보관을 방문하여 그 공보관의 주필인 유씨(劉氏)를 만난 것이다. 운인은 그가 만난 유주필을 ‘박식하고 뜻이 높은 한 세대의 명사’라고 평가했는데 그와 더불어 글로 담화하고 간담을 털어놓고 그의 논설을 읽으면서 하나의 악몽을 깨트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다. 운인은 유주필의 논설에서 ‘러시아는 전제국가요 일본은 입헌국가이니, 전제국의 백성은 모두 애국하는 마음이 없고 입헌국의 백성은 모두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 애국하는 백성으로써 애국하지 않는 백성과 전쟁을 하면 어찌 애국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겠는가? 그렇다면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가 패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다’<sup>18)</sup>라는 대목에서 전제 국가의 한계와 입헌국가의 희망을 보았으며 봉건적 사고방식이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운인은 劉主筆과의 만남과 대화, 논설을 통해 그동안 고심하고 있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떤 시대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과 기준을 갖게 되었다. 정세에 대한 판단과 처세에 혼란스러웠던 운인으로서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 것이었다. 이 때의 의미있는 만남과 각성에 대해서 운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긴다.

報館與天躡屨登	하늘같은 대공보관 짚신 신고 올라
樽前鼎坐語生層	술동이 앞에 셋이 앉으니 말에 층이 생기네
遠邦異籍心神會	먼 나라에 호적 달라도 심신 합쳐지고
大颶同舟膽氣騰	태풍에 한 배 타니 담력이 오르네
紫竹林明升夕月	자죽원 숲 밝으니 저녁달 오르고

18)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195-199쪽, <着天津入天津棧數旬滯留略記聞見如左 천진에 도착해서 천진여관에 들어가 수십 일을 체류하였는데 견문을 대략 기록한 것이 아래와 같다.>

白河水活解春冰	백하 물 출렁이니 봄 얼음 풀렸네
百年惡夢今初覺	백년의 악몽 이제서야 깨어 보니
却恨茲遊未得曾	문득 이 여행 일찍 못함이 한스럽네 <sup>19)</sup>

천진에 머무르던 운인은 3월 말경에 천진을 떠나 기차로 북경에 이르게 된다.<sup>20)</sup> 운인은 북경에서도 수십 일을 머무르면서 頤和園, 萬歲山, 文淵閣 등을 유람하였지만 실제로는 모종의 일을 강구하였던 듯 싶다. 그렇지만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운인은 다시 天津으로 가서 기선을 타고 귀국하였다.<sup>21)</sup>

귀국한 뒤 운인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른 듯 하다. 1905년 5월 24일에 열린 헌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운인이 상소운동과 복합소 운동에 동참하였던 尹秉과 李沂 등과 함께 사무원에 선임되었다<sup>22)</sup>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운인이 참여하였던 헌정연구회는 1905년 5월에 국민의 정치의식과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참여한 주요인물로는 공진회 간부였던 양한묵, 윤효정 등과 상소운동, 복합소운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홍필주, 이기, 이윤중, 윤병, 송홍 등의 개신유학자들과 교육의 개혁과 보급을 주장하는 국민교육회에서 활동하던 이준, 김정식, 이원공 등이 연합하여 조직한 정치단체였다. 헌정연구회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막고 국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

19)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23쪽.<大公報館與劉主筆唱酬 大公報館에서 유주필과 시를 주고받다>

20)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24쪽.<三月末頃自天津乘汽車到 北京淹留數旬 3월 말경에 천진에서 기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하여 수십 일을 체류하다.>

21)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28쪽.<滯北京數旬所關事不諧意遂還向天津搭汽船就歸國之路天津遇颶風備嘗危懼及安定回思甚奇怪仍成一律 북경에서 수십일 체류했지만 관계한 일이 마음에 맞지 않았다. 드디어 다시 천진을 향해 기선에 탑승하고 귀국의 여정에 나아갔다. 천진에서 태풍을 만나서 위태롭고 두려움을 겪었으나 곧 안정되었다. 심히 기이하고 괴상한 일을 회상하면서 시 한 수를 짓다.>

22) 한규무,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雲人宋鴻의 계몽운동과 민족교육」, 109쪽에서 재인용.

체제로써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으며 헌정 연구와 헌정사상의 보급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체결로 정치운동이 금지되자 헌정연구회는 해체되었으며 1906년에 대한자강회로 개편되었다.

#### 2.4. 운인의 제3차 사회참여활동- 教育革新運動과 教育活動

서울에서의 활동과 중국 여행에서 얻은 견문 등으로 운인은 ‘천하의 형세가 크게 변할 것을 알고, 변화를 따라 형세를 돌이키려면 반드시 서양 학문을 수용해야 국민의 지혜를 계발할 수 있고 국력을 진작할 수 있다’<sup>23)</sup>는 믿음과 신념을 갖게 된다. 서양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시각을 갖게 된 운인이 특히 주창하였던 것은 신교육의 도입과 교육의 혁신이었다. 운인은 교육에 투신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교육관, 그리고 22년에 걸친 자신의 교육여정을 자세하게 진술한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sup>24)</sup>에서 ‘세계는 바야흐로 개조되고 있다. 만약에 망함을 피하고 보존을 도모하고자 하면 비록 백 사람의 관중과 천 명의 제갈량이라도 유럽의 신학문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와 안남의 전감(前鑑 앞의 일을 거울삼아 비추어 보는 일)을 가릴 수 없다.’는 신념을 피력하였다. 운인은 신교육의 도입과 교육의 혁신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천진에서 귀국한 이후 곧바로 ‘孤憤生’이라는 이름으로 당로(當路 요직에 있는 사람)와 사회 각 방면에 글을 보내어 신학문을 채용하고 옛것을 개혁하는 것은 반드시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운인은 신학문을 채용하고 옛 것을 개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군의 향교를 이용하여 신학교를 설치하고 교사(校舍)는 향교의 재각 등으로 충당하되 혹

23)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207-208쪽.<附 孤憤堂記 부록 고분당기>

24)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199-206쪽,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

수선하거나 증축하고, 신교육의 경비는 향교의 재산을 기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신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이 모자라는 것은 각 도의 도청에 사범학교를 설치하되 경비의 절반은 정부가 보조하고 절반은 도내의 유력인사들에게 의뢰한다면 성공할 것이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요로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운인의 교육혁신책에 찬동하면서도 경비염출 문제에 이르자 각 도와 군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따지고 충돌하면서 미를 뿐이었다.<sup>25)</sup>

운인이 입헌국가 수립의 꿈을 실현하고자 가담하였던 ‘헌정연구회’는 해산되고 구국의 마지막 보루로 부르짖었던 신교육의 실시와 교육의 혁신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헌정연구회의 해산과 교육개혁의 무산을 계기로 운인은 1905년 말경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 같다.<sup>26)</sup>

1906년(丙午年, 35세) 고향에서 선달과 정월을 보낸 운인은 2월이 되자 다시 서울에 가기 위해 목포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향한다.<sup>27)</sup> 밤에 증기선을 타고 목포를 출발해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인천에 도착한 운인은 여관에서 중국 산둥성에 거주한다는 ‘청광수(淸狂叟)’라는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새우면서 세상사에 대한 문답을 주고 받게 된다. 이때 주고받은 문답을 운인은 <분광문답(憤狂問答)>이라는 기록으로 남기는데 ‘때는 병오년(1906) 봄 2월 중순경이다. 고분생(孤憤生)과 청광수(淸狂叟)가 인천 여관에서 해후하여 붓으로 혀를 대신하였다. 그 문답을 기록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 <분광문답(憤狂問答)>이라 명명하였다.’<sup>28)</sup>고 전제하면서 쓰여

25)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199-206쪽,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

26)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32-33쪽. <是時余以嫌疑不能露蹤潛歸鄉山與塾友同酬, 이때에 나는 혐의 때문에 종적을 드러낼 수 없어 몰래 고향에 들어와 서당 벗들과 함께 수창하였다.>, 「除夕(선달 그믐날 밤에)>, <丙午元旦曉題.(병오년(1906) 정월 초하루 새벽에 쓰다)>.

27)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34-35쪽. <二月復作京行取木浦船行之便 이월에 다시 서울행을 작정하여 목포에서 가는 배편을 취하다>.

28)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雜著, 167-182쪽, <분광문답(憤狂問答)>.

진 글에는 한국의 전라남도 사람인 ‘孤憤生’과 중국 산둥성 사람인 ‘淸狂叟’가 여관에서 해후하여 서로 통성명을 하다가 의기가 투합하여 하루종일 대화할 것을 서로 원하여서 점심과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대화에 열중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대화의 주제는 ‘두 나라의 국호, 중국의 걸인과 조선의 과객, 중국의 변발과 조선의 장발, 중국의 전족과 장례의식, 풍수지리설의 폐해 등 두 나라의 풍속의 차이와 폐단 등에 대해 논하다가 중국과 한국의 운명, 특히 망국의 징조가 짙어가는 한국의 구국책’ 등에 대해 격론을 벌이게 된다. 여기에서 ‘孤憤生’은 ‘한국은 장차 망하려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금 망한다고 해서 영원히 망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희망이 없으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지금 망해도 부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면서 세계가 이미 개조되었으므로 온 천하에 가장 급히 힘써야 할 것은 첫째도 신교육이요 둘째도 신교육이라고 주장한다. 신교육은 바로 서양의 실리의 학문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조정에서 신교육령을 반포하여 각도에 몇 개의 소학교를 처음 설치하였고 이보다 앞서 서울에 있는 서양인 교회가 이미 몇 개 학당을 설치했고, 지금 또 민간으로부터 교육열을 고취하여 경기도, 충청도, 영남, 호남, 관동, 서북에 각각 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신교육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기한을 정하고 속히 이를 것은 아니고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지만 만약 한결같은 심력으로 착착 진행하면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국권이 환수될 것’<sup>29)</sup>이라는 ‘40년 준비설’을 제시하였다.

운인은 자신의 교육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교육의 현장에 뛰어 들기로 하였다. 1909년(己酉年, 38세) 1월에 운인은 광주보통학교 훈도로 임명받아 출근하게 된다. 다음의 시는 운인이 학교에 출근하게 되면서 그 감회를 피력한 시이다.

29)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雜著, 172-182쪽, <분광문답(憤狂問答)>.

我東教育法西洋  
新制多多設學堂  
蜂起英材趨實理  
從茲可卜弱還強  
講壇初話意深長  
只信神祇質在傍  
知否諸生肩擔上  
萬年祖國係興亡

우리나라 교육은 서양을 본받아  
제도를 새로이 하여 학당을 많이 설립했네  
벌떼같이 일어난 영재들 실리를 추구하니  
이로부터 강해질 것을 점칠 수 있겠네  
강단에서 처음 대화하니 의미심장해  
다만 믿는 건 신령이 곁에 있어 질정함이네  
아는가 모르는가 학생들의 어깨위에  
만년 조국의 흥망이 걸려있는 걸<sup>30)</sup>

보통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 운인은 ‘학생들은 각자 그 마음과 재주가 있어서 민족성으로 인도하고 조국혼으로 주입하면 월나라 구천이 10년 안에 인구를 불리고 재력을 축적할 것이며, 또 10년 안에 백성을 훈련시켜 강병(強兵)을 양성하는 뜻을 미루어 알 수 있다.’면서 교육으로 십년을 기약하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sup>31)</sup>는 ‘10년 기약설’을 희망으로 교육에 매진하였다. 그렇지만 기울어 가는 나라를 회생시킬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교육에 투신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자 운인은 다시 자신의 행동양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운인은 ‘이와 같은 것이 1년 반 만에 홀연히 나라의 운명이 영원히 끊기는 것을 보았으니, 바야흐로 그 당시에 어찌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돌아가 몸을 깨끗이 하고 자정(自靖)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나라가 이미 망함에 앞으로의 희망은 오직 교육 한 가지에 매어 있으니 나는 떠날 수 없다. 또한 우리 학생은 결코 내가 떠나감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지극한 원한을 품고도 원한이 없는 듯이 하고 극심한 고통을 참아서 고통이 없는 듯이 하여 언연(偃然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스러움)히 옛 교단에 섰다. 날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역대의 흥폐를 강의하

30)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40쪽, 「己酉一月自學部任光州普通訓導承命出勤因感以作 기유년(1909) 1월에 학부로부터 광주 보통 훈도로 임명받아 명을 받들고 출근했다. 느낌으로 인하여 쓰다.>

31)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203쪽,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

고 현세의 강약을 살피며, 또 농업학교와 사범학교의 교편을 번갈아 잡았다.’<sup>32)</sup>라고 하면서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교육으로 후일을 기약하는 믿음으로 운인은 나라를 잃은 슬픔에 소리없는 눈물을 삼키면서 교육에 몰두하기로 다짐하였다.

日削邦權不自持  
半千年史最終期  
人民土地全圓幅  
讓與東隣乞統治

일본이 주권 삭탈하여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니  
반천 년의 역사 끝나버렸네  
인민과 토지 전체를  
일본에게 양도하여 통치를 구걸하다니

憤死何如忍辱生  
中間取舍不宜輕  
回看時勢今殊古  
實理書中正義明

분개해 죽지 어찌 욕됨을 참고 살아가는가  
중간에 취사선택 마땅히 경솔해서는 안 되지  
시대의 형세 돌아보니 지금은 옛과 달라  
실리 책 속에 정의가 명확하네

心許諸公不我分  
教鞭依舊自成羣  
誰知暗澹依迷裡  
注入深深祖國魂

마음에 제공을 허락하는 건 내 분수 아니니  
교편은 의구하여 스스로 무리를 이루네  
누가 알랴 암담하고 희미한 속에  
깊고 깊이 조국혼이 주입되는 것을<sup>33)</sup>

10년을 기약하고 시작한 운인의 교육 성과는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 일 년 반 만에 나라가 망하면서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는 듯 했다. 그러나, 운인이 교육에 종사한 지 10년이 되는 기미년(1919) 3월에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운인은 기미년에 일어난 3.1독립운동에 대해 ‘이것은 저절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파리-워싱턴 회의의 소위 민족자결과 인도정의 등의 설에 의해 움직인 것이다.

32)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203쪽, <孤憤堂顛末記(고분당 전말기)>.

33)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42-43쪽. <無聲淚 소리없는 눈물 [日本統監寺內正毅・朝鮮總理李完用, 締結日韓合併條約, 八月二十九日, 讓國詔書發佈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조선 총리 이완용이 한일합병 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에 나라를 양도하는 조서를 발표하였다.> 5수 중 1, 4, 5수.

나는 벽을 단단히 하여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렸을 뿐이다.’<sup>34)</sup>고 세계정세 속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지만 한편으로는 1909년에 교편을 잡기 시작하면서 희망했던 ‘10년 기약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육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다짐했을 것이다. 운인의 3·1운동 관련에 대해서는 행장이나 묘표<sup>35)</sup>에서까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공은 同胞에게 보내는 檄文을 지어 그 次男인 秘秀로 하여금 전달케 하였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日憲의 逮捕令이 내리자 美國으로 亡命하였다’ 고 쓰고 있으며 다른 자료들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쓰고 있으나 운인의 어느 글에서도 3·1운동에 연루하였다는 기록은 볼 수 없으며 3·1운동으로 인한 미국망명설은 더욱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그 후 운인은 광주고등보통학교(현재의 광주제일고등학교)로 이직하여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재직하였다.<sup>37)</sup> 광주고등보통학교 재직 시절 운인은 ‘조선어를 담당하였는데 일본인 교장의 눈을 피해 곧잘 충무공(忠武公)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곤’<sup>38)</sup>했으며 한국사와 동양사 연구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운인은 생은 교장, 교감을 비롯한 학교 당국의 감시의 눈을

34)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203쪽, <孤憤堂顛末記(고분당 전말기)>.

35)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附錄」<行狀(행장)> 216쪽. <墓表(묘표)> 219쪽.

36) 운인의 미국망명설은 운인의 둘째 아들인 필수가 미국 뉴욕으로 5년간 유학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50쪽. <秘秀遊學米國紐育經五霜始歸國設'라디오'商店於京城東大門內余一往見之'라디오'之神奇可謂奪天參神矣不禁驚歎因成二絕詩 필수가 미국 뉴욕에 유학을 가 5년을 지내고 비로소 귀국하여 서울 동대문 내에 라디오 상점을 개설하였다. 내가 한번 가서 보니 라디오의 신기함은 하늘의 조화를 빼앗고 신의 경지에 참여한다고 이를 만했다. 경탄을 금치 못하고 절구 두 수를 짓다.>

37)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회,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2004. 103쪽.

한규무는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雲人宋鴻의 계몽운동과 민족교육」이라는 논문에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운인의 광주고등보통학교 재직기간을 1924년-1929년으로 제시하였다. 112쪽.

38) 민두기, 「宋鴻 先生의 뜻」, 동아일보 『淸論濁說』 1976.12.22.

피해 수업 시간이면 칠판에 강의 제목만 써놓고 한국 역사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세계 정세 및 민족의 진로 등에 대해 역설하면서 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지표는 조국 광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학생들 역시 서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sup>39)</sup>고 회고하였다.

1929년 11월에 일어난 ‘광주 학생사건’은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 대 광주고등보통학교의 사건으로 처음에는 두 학교의 학생들이 나주역전에서 설전함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면 별 탈 없이 무마되었을 사건인데 일본인 학생들은 하나도 처벌하지 않고 한국인 학생들만 경찰서로 잡아들이는 차별적인 처사로 인해 전국적인 학생 운동으로 확산되고 급기야는 서울의 명사들, 학사, 변호사들까지 반대하고 체형을 받는 등 제2의 독립운동으로 변졌던 ‘학생전위사건’이다.<sup>40)</sup>

1930년(庚午年, 59세) ‘광주학생사건’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들에 의해서 발발하고 그것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성격을 띄면서 확산되어 가자 학생들에게 조선어와 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혼을 주입시켰던 운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이 매일 경찰서로 잡혀가고 철창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도 구제할 실력도 없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볼 수 없어서 병을 핑계삼아 결근하기를 3개월여 하다 2월 8일 면직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운인과의 연관성에 대하여『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광주고보 학생들이 민족의식

39)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회,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2004.345쪽. 「제7장 민족의 스승 송홍」

40)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134-135쪽. <去己巳十一月, 光州高等普通學校學生事件突起, 對日本中學校學生紛爭也. 一時, 兩校生徒相抗, 便作一戰鬪之勢, 此事波動火飛鮮內各地, 及至日本我生徒所在處, 踵接響應, 一警全世界耳目, 此件世稱‘光州學生事件’. 지난 기사년(1929) 11월에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 일본 중학교 학생을 상대로 분쟁하였다. 일시에 두 학교의 학생이 서로 대항하여 전투의 형세를 지어, 이 사건의 파동이 조선 각지에 비화되었다. 심지어 일본의 우리 학생이 있는 곳에서도 연이어 호응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놀라게 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서 말하는 ‘광주 학생 사건’이다.>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204-205쪽,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

을 자각하고 확고히 하게 된 경로는 대개 다음의 3가지였다. 첫째가 동경(東京)유학생들과 접촉 및 그들의 영향이다. 두 번째는 수학여행을 통한 식견(識見)의 확대였다. 셋째는 광주고보에는 개교 이래 한문(漢文)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송홍(宋鴻)선생이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분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한말(韓末)의 석학(碩學)이자 거유(巨儒)였고 애국지사였던 송홍(宋鴻)선생이 후학의 교육을 맡아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시킨 것이다. 송홍(宋鴻)선생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고 1930년 2월 28일 일제로부터 그 책임을 물어 퇴직할 때까지 온갖 감시와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일관하였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적 원천(源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광주고보에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학생의 독립운동사에서 송홍(宋鴻)선생의 위치와 역할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sup>41)</sup>

운인의 송별식은 1930년 2월 12일에 있었는데 이 날은 공교롭게도 감옥에 있던 학생들의 제1회 공판기일이었다. 송별식장에서 운인은 절구한 수를 지어 남아 있는 학생들과 고별하고 22년에 걸친 교직생활을 마감하였다. 다음은 송별식장에서 운인이 남겼다는 시이다.

敎育吾曾叫革新	나는 교육만이 오로지 혁신이라 부르짖으며
一心二十二年春	한마음으로 스물 두해를 보냈네
今朝說與諸君別	오늘 아침 제군들과 이별을 말하나
無負江湖老病人	강호의 늙고 병든 사람 저버리지 말게나 <sup>42)</sup>

운인의 송별식에 대해서 경향의 각 신문이 보도하면서 학생들의 공판기일과 겹치는 것에 대해 해석이 구구하고 비평이 분분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조사를 받는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sup>43)</sup>

41)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회,『광주고보, 서증, 일고 80년사』, 2004.339-340쪽.「제7장 민족의 스승 송홍」

42)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43쪽. <庚午春光州高等普通學校教諭辭表提出送別式場作一絶詩示諸生경오년(1930) 봄에 교사 사표를 제출하고 송별식장에서 시 절구 한 수를 지어서 학생들에게 보이다>

## 2.5. 운인의 교육계 퇴진과 孤憤堂 칩거

평생을 교육에 바치기로 다짐하였던 운인은 뜻하지 않게 학교를 사직하자 광주 서동에 있던 협소하고 초라한 자택을 처마를 달아내고 마루를 넓히면서「孤憤堂」이라 편액하고 칩거하였다. ‘孤憤’이란 한비자가 지은 저서의 편명인 ‘고특우분(孤特憂憤)’에서 연유한 것으로 “무리가 없어 외롭고 마음에 우분(憂憤)을 품는다”는 뜻이다. 운인은 자신의 당호인「孤憤堂」의 ‘孤’는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을 말하며 ‘憤’는 기뻐하지도 즐겨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堂號로는 지극히 적막하고 냉랭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친구인 碧農 金演夏가 운인이 영재를 교육한 것은 憂憤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운인이 쓴 시에 孤憤의 뜻이 많고, 운인이 말하는 ‘孤憤’이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희망을 미래에 둔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孤憤堂」을 당호로 쓰는 것을 동의하였다<sup>44)</sup>고 하였다. 운인이「孤憤堂」에 관하여 쓴 絶句 二首 律 一首, 顛末記 一篇이 있으며, 다음 시는 절구 2수이다.

接簷增補半間強  
陰庇從今倍昔涼  
容我老軀堪坐臥  
蕭然傍有一書床  
點檢新聞與古詩  
碧梧桐下日遲遲  
有時煩惱仍成夢  
四海魂飛任所之

처마 잇대어 반 칸 남짓 더 보태  
그늘이 이제 전보다 배나 서늘하구나  
내 늙은 몸 앉고 눕게 되었으니  
쓸쓸히 곁에는 책상 하나 놓였네  
신문과 옛 시를 점검하노라니  
푸른 오동나무 아래 해는 더디기만 해  
때때로 번뇌 있어 꿈을 이루니  
사해에 혼이 날아 정처없이 가는구나

却將孤憤扁斯堂  
顧我平生一夢長

문득 고분이라 이 집에 편액하고  
내 평생 돌아보니 한바탕 꿈이 길구나

43)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

44)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2, 199-206쪽,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 207-208쪽. 『附 孤憤堂記(부록 고분당기)>.

挑燭泰西新學術  
掛圖遼北舊封疆  
育英年老終何益  
採藥山遙亦未遑  
城外境幽人少到  
縱然難與世相忘

촛불 돋우며 서양 신학문을 보고  
지도 걸고 요동 북쪽 옛 강토를 보네  
육영에 나이 늙으니 마침내 무슨 이익 있으랴  
약초 캐는 산 멀어 또한 겨를이 없네  
성 밖 지역 그윽해 찾아오는 이 적으네  
그래도 세상사 잊기는 어렵네<sup>45)</sup>

고분당에서의 운인의 생활은 ‘讀書와 著書의 執筆 및 書道の 研磨에만 정진하였으며 貧寒과 監視 속에서 堂號 그대로 孤獨과 悲憤의 세월을 보냈다. 뜻있는 弟子, 憂國之士, 큰 자부되시는 전남 장성 출신의 황주 변씨 집안, 특히 광주고보 1회 출신으로 수제자이자 동료였던 변진복 선생과 그 친우들이 감시의 눈을 피하여 가끔 공을 방문하는<sup>46)</sup> 정도였다.

### 2.5.1 「現代新進實用書簡文」의 간행

고분당에서 칩거할 때 운인은「現代新進實用書簡文」이라는 저서를 출간한다.「現代新進實用書簡文」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나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서간문 작성에 대한 책이다. 운인은 학교에 재직할 때부터 서간문에 관한 저작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으나 학교 일이 劇務였던 관계로 실현하지 못하고 교직을 떠난 이후에야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이 저작된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 있지 않으나 운인이「孤憤堂」에서 칩거하던 1930년에서 1936년 이전에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sup>47)</sup> 현재 운인이 저작한「現代新進實用書簡文」은 남아 있지 않고『雲人遺稿』에 그 서문인「現代新進實用書簡文序」<sup>48)</sup>만 수록되어 있다.

45)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44-45쪽. <城西蝸屋甚窄難容膝 因接簷增補半間涼軒扁以孤憤堂仍構絕句二首律一首顛末記一篇以見意 성 서쪽의 조그만 집이 아주 비좁아 무릎 펴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래서 처마를 잇대어 반칸 서늘한 마루를 증보하고 ‘고분당’이라 편액하였다. 그로 인하여 절구 2수와 읊시 한 수, 전말기 한 편을 지어서 뜻을 나타내다.>

46)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216쪽.<行狀(행장)>

47)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216쪽.<行狀(행장)>

「現代新進實用書簡文」은『雲人遺稿』에서 유일하게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었다. 운인이 이 책을 저술하면서 국한문을 혼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기보다 의식적으로 우리말과 우리글, 통일된 철자법을 쓰려는 의지에서였다. 더 나아가 글이 한자용어, 한문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의 굳은 관습을 일시에 근절시킬 수 없는 점에서, 또 재래의 예의와 서식을 가르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자용어와 문체를 쓸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아쉬워 하면서 철자법만은 확실하게 통일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자부하였다.

## 2.5.2 운인의 국내 유람

학교를 사직하고 고분당에서 칩거할 무렵 운인이 자주 한 일이 유람이었다. 운인은 젊은 시절 경성과 중국 유람을 통해 세계정세를 판단하고 자신의 뜻을 세울 수 있었던 만큼 교육의 현장을 떠나 시간이 생기자 운인은 다시 유람하기 시작하였다. 운인이 유람하였던 곳은 광주 인근의 정자들에서부터 금강산과 평양, 개성, 그리고 제주도에 이르기까지였다.

1937년(丁丑年, 66세) 가을 8월에 운인은 金剛山 旅行을 하게 된다. 운인의 금강산 여행은 가장 가까웠던 尼山 高光烈과의 약속을 실행한 것인데 자금이 대한 부담때문에 크게 결심하고 떠난 여행이었다.<sup>49)</sup>

8월 20일에 청량리역에서 열차로 시작된 운인의 금강산 여행은 가는

48)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권2, 序, 「現代新進實用書簡文序현대신진실용서간문서문」, 188-191쪽.

49)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권1, 56쪽. <丁丑秋八月高尼山光烈來促金剛行已有宿約故也然資斧爲問題猝未辦得經一宿大決心快然登程十七日抵京城數日滯留於東大門內秘秀之商店二十日直取金剛之路早發清涼里驛乘車 自此隨處必有詩是記行也 정축년(1937) 가을 8월에 이산 고광렬이 와서 금강산 여행을 재촉하니 이미 전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갑자기 마련하지는 못하고, 하루 밤을 지내고는 크게 결심해서 쾌연히 여정에 올랐다.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동대문 안 필수의 상점에서 수일을 체류했다. 20일 곧바로 금강산 길을 향해 일찍 출발하여 청량리역에서 열차에 오르다[이후로는 가는 곳마다 반드시 시가 있으니 여행을 기록한 것이다.]>

곳마다 시를 남겼는데 여행의 경로는 대략 다음과 같다.

淸涼里-鐵原-斷髮嶺-末輝里驛(內金剛驛)-長安寺-明鏡臺-麻衣太子遺墟-靈源庵-鳴淵潭-表訓寺-正陽寺歇惺樓-萬瀑洞-普德窟-八潭-磨訶衍庵-內霧在嶺-楡岾寺-昆盧峯-龍馬石-麻衣太子陵-九天瀑-鳳雛瀑-淸流壁-朝陽瀑-上登峯-萬相亭-萬物相-溫井里-神溪寺-玉流洞-連珠潭-飛鳳瀑-舞龍橋-水簾瀑-九龍淵-海金剛-三日浦-長箭港-叢石亭을 거쳐 元山에 이르고, 元山 松壽園-十里明沙-釋王寺에 갔다 京城으로 돌아 온 일정으로 되어 있다.<sup>50)</sup>

금강산 유람에서 돌아 온 운인은 경성에서 며칠 휴양한 다음 다시 平壤을 향하여 떠난다. 평양에서 운인은 乙密臺-牡丹峰-箕子陵-浮碧樓-練光亭을 보고 平安北道의 順天邑과 价川邑, 龍門山을 거쳐 京城으로 내려 오다가 開城에 이르러서는 滿月臺 宮墟-善竹橋를 거쳐 京城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취하였다.<sup>51)</sup>

운인은 또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木浦에서 밤배를 타고 濟州읍에 내려서 제주도 瀛州唵社 회원들의 초대를 받고 함께 교유하고 韻字를 내어 詩를 주고받아 책자로 만드는 등의 교제를 하였다. 운인은 제주도 기행에서 毛興穴-毛瑟浦飛行場-天地正房二瀑布-城山 日出 등을 유람하고 음사의 사람들과 송별연으로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한다.<sup>52)</sup>

## 2.6. 운인의 제4차 사회참여활동- 8.15 해방과 교육 현장 복귀

1945년(乙酉年, 74세) 해방이 되자 운인은 다시 광주서중학교의 교단에 복귀하여 국사학을 가르쳤다. 1930년 교단에서 쫓겨난 지 17년 만에 74세의 노구로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이다. 운인은 해방의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해방이 된 연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역사의식을 또

50)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권1, 56-77쪽.

51)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권1, 77-82쪽.

52)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권1, 90-94쪽.

렷하게 가지고 있었다.

獨立名嘉顏欲頰	독립의 이름 아름다우나 낮 뜨거우니
不能自力賴人成	자력으로 하지 않고 타인의 힘으로 이루었네
五千年史檀君族	오천 년 역사 단군 민족은
非米非蘇聚我精	미국도 소련도 아닌 우리의 정신을 모으세 <sup>53)</sup>

1947년(丁亥年, 76세) 미국과 소련이 삼팔선을 정하여 국토를 분할하고 군정을 선포하면서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남북에서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가 맞붙게 되고 학생들까지 분열되어 1947년 7월에는 서중학교 방화사건으로 교사가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sup>54)</sup> 경찰들이 범인을 수색한다는 핑계로 사방으로 검속하는 와중에 운인도 경찰에 불려가 사흘을 경찰서 판자방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와 한 달 간을 병으로 앓아 눕게 되었다. 운인은 경찰서에서 풀려나와 기막힌 감회를 절구 여섯 수로 나타내었다.

米南蘇北割相屯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갈라 주둔하니
祖國存亡未定魂	조국의 존망 알 수 없어라
兼是我民分左右	우리 민족도 좌우로 나뉘었으니
何時打作一乾坤	언제 두드려 한 세상 만들까

勞資互轢日紛紛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다투 날마다 시끄러우니
---------	---------------------------

53)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132-134쪽. 12수 중 1수. <世界大戰, 伊太利及獨逸已降, 唯日本抗戰, 美國以原子彈新機, 爆擊日本廣島, 七十萬大都, 一時作灰, 日本大恐慄, 至八月十五日, 日本天皇向米英蘇(露西亞)蔣(中國)等聯合軍前, 無條件乞降, 以 '나지오', 放送於各地, 我朝鮮, 自此脫羈絆矣, 因感作絕句 十二首. 세계대전에서 이태리와 독일은 이미 항복했고 일본만이 항전하였다. 미국이 원자폭탄 신무기로 일본열도를 폭격하여 70만 대도시가 일시에 재가 되자 일본은 크게 겁을 먹었다. 8월 15일에 이르러 일본천황이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군 앞에 무조건 항복을 구걸하여 각지에 라디오로 방송했다. 우리 조선은 이로부터 굴레를 벗어 날 수 있었다. 감격으로 인하여 절구 12수를 짓다.>

54)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회, 『광주고보, 서중, 일고 80년사』, 「제3절 서중교사 대화재(大火災)」2004.410-412쪽.

二大潮流世界分  
殘虐隨之兼破壞  
只看天際鎖頑雲

이대 조류로 세계가 나뉘어졌네  
잔학이 따르고 겸하여 파괴하니  
하늘가에 먹구름만 잡겨 있구나

可憐七十六年翁  
三夜淹留鐵柵中  
謂我左傾凌辱甚  
不知老老古來風

가련타 일흔여섯의 노인  
사흘 밤이나 철창에 머무르다니  
나보고 좌경이라 능욕도 심하니  
노인을 노인으로 여기는 옛 풍속도 모르나<sup>55)</sup>

55)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권1, 145-147쪽. 6수중1,2,3수. 「世界第二次大戰爭終幕之結果, 我朝鮮解放還生矣. 然米國與蘇聯, 稱以三八線劃界, 分割駐兵, 布告軍政, 京畿道一部 江原道一部及三南, 全入於米軍統轄, 京畿江原餘部及西北全部, 盡歸於蘇聯勢圈矣. 在米之李承晚, 隨米軍入京城, 在重輕中國之臨時首都之金九等, 亦後先入京城. 金日成, 金料奉等, 隨蘇聯之後, 歸來平壤. 其外在鮮之志士輩, 在在呼應, 如呂運亨, 宋鎮禹等, 設會聚黨, 獨立促進之聲, 震動八方. 既而各自分裂軋轢, 至於右翼左翼之名目. 右翼者, 附米尾蠢動結束, 資本家及親日派, 卽米國資本主義也. 左翼者, 以蘇聯爲背景, 平等主張, 土地分配, 卽蘇聯共產主義也. 京城平壤, 依然兩首都之形勢矣. 兩主義彌滿全世界, 分爲二大潮流, 各形各色, 狙伏豕突, 前記呂宋者, 終作血鬼矣. 暗暗中, 魔手延及於各學校, 裂生徒之心理, 劈爲兩片, 光州西中學校, 一夜全燒了, 此欲嫁禍於那邊也. 蓋解放直後, 各學校日人教師, 盡爲竄鼠, 學生便同放豚, 西中出身中, 專大卒業者十數名, 奮然發起, 思欲復興母校, 招集遊散分擔教授, 請余以國史科講座. 窃念十七年前, 被逐之舊教員, 老而不死, 遭此機會, 亦一奇緣, 卽欣然就校, 復執教鞭. 纔經二霜, 頑雲陰霧, 難見一日快晴, 忽逢此一大火變, 嗚呼! 慘矣. 所謂警吏輩, 稱以搜索犯人, 四出檢束, 余亦在檢中, 經三宿於警察署板房矣. 因感作六絕詩 세계 제2차 대전의 종막의 결과 우리 조선이 해방되어 다시 살았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삼팔선으로 칭하여 경계를 긋고 분할하여 군대를 주둔하여 군정을 포고하였다.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 및 삼남은 모두 미군 통할로 들어갔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나머지 부분과 서북의 전 지역은 모두 소련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미군을 따라 서울에 들어왔고 중경[중국 임시 수도]에 있는 김구 등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울에 들어왔다. 김일성과 김두봉 등은 소련의 뒤를 따라 평양으로 왔고 그밖에 조선에 있는 지사들이 여기저기에서 호응했다. 여운형과 송진우 등은 회의를 개최하고 당을 모았으니 독립을 촉진하는 소리가 팔방을 진동하였다. 이윽고 각자 쫓겨져 대립하여 좌우익의 명목에 이르렀다. 우익은 미국 꼬리에 붙어 준동하여 자본가와 친일파를 결속했으니 바로 미국 자본주의이다. 좌익은 소련을 배경으로 삼아 평등을 주장하고 토지를 분배했으니 바로 소련 공산주의이다. 이렇게 되자 경성과 평양은 의연히 두 개 수도의 형세가 되었다. 두 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 나누어 2대 조류가 되었으니 각형 각색으로 엮드렸다가 기습하니 앞에서 기록한 여운형과 송진우는 마침내 혈귀(血鬼)가 되었다. 암암리에 마수가 각 학교에까지 뻗쳐 생도의 심리를 분열시켜 두 쪽으로 쪼개 광주서중학교가 하룻밤에 완전히 불탔으니, 화를 상대방에 전가하려는 것이었다. 대개 해방 직후에 각 학교의 일본인 교사는 쥐새끼처럼 다 도망갔으니, 학생

식민지였던 나라를 되찾고, 일인들에 의해 쫓겨난 모교에 다시 돌아와 새 나라 건설의 희망을 갖고 교편을 잡은 지 2년 만에 외세가 아닌 같은 민족의 사상적 대립과 분열로 인한 화재사건의 충격과 경찰서에서의 심한 취조로 인하여 운인은 병을 얻고 광주 서중학교와 광주의과대학 강사직을 모두 사직하였다.

醫大西中歷史師  
一齊辭免更何爲  
從茲誓入深山裏  
飲水看書送末期

의대와 서중의 역사 선생을  
일제히 사퇴하니 다시 무엇을 하리  
이로부터 맹세하노니 심산에 들어가  
물마시고 책 보며 말년을 보내리라

悶余全老有隣朋  
藥酌過牆意幾層  
縱是壽康才最劣  
自慚難似太公鷹

내 늙음 불쌍히 여기는 이웃 벗 있어  
약술을 담으로 넘겨주니 그 마음 몇 층일까  
장수하고 건강하나 재주 졸렬해  
태공처럼 날래지 못한 게 부끄럽구나<sup>56)</sup>

학교를 그만 둔 후 운인은 친구를 만나는 등으로 소일하지만 나라의 형편과 정세를 살피면서 근심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1949년 6월 18일 자택에서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다음은 운인이 세상을 떠나던 해 정월 대보름에 즈음하여 쓴 시인데『雲人遺稿』에 실려 있는 마지막 시이기

은 문득 풀어놓은 돼지 같았다. 서중 출신 중에 전대(專大) 졸업자 수십 명이 분연히 발기하여 모교를 부흥시키려고 생각하여 흩어진 사람을 모으고 교수를 분담하여 나에게 국사과 강좌를 청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17년 전에 쫓겨난 옛 교원이 늙어서 죽지 않고 이런 기회를 만났으니 또한 하나의 기연이다. 곧 혼연히 학교에 나아가 다시 교편을 잡고 겨우 2년이 지났다. 먹구름과 짙은 안개로 하루도 쾌청한 날을 볼 수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대의 화변(火變)을 만났으니, 아아 슬프도다. 소위 경찰들이 범인을 수색한다는 핑계로 사방으로 나가 검속하니 나 역시 검사를 받느라 사흘이나 경찰서 판자 방에서 지냈다. 감회가 있어 절구 여섯 수를 짓다.]

56)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148쪽. 「自警署歸來因吟病彌朔光州西中學校教職辭退經數月亦辭光州醫科大學講師之任因作二絕詩 경찰서로부터 돌아와 병을 한 달간 앓았다. 광주서중학교 교직을 사퇴하고 몇 개월 지나 또 광주의과대학 강사의 임무를 사퇴했다. 인하여 절구 두 수를 짓다.」

도 하다.

新歲過旬漸減寒  
層崖幾處雪留殘  
風鳴巷樹無多靜  
冰碎簷禽不自安  
初志歸泡成病久  
萬詩堆玉救貧難  
回頭國際如絲亂  
誰把平和就一團

새해가 열흘 지나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니  
층층 벼랑 몇 곳이나 눈이 남았을까  
바람이 우니 마을나무는 많이 고요하지 않고  
얼음이 녹으니 처마밑 새는 스스로 불안하네  
처음 뜻 수포로 돌아가 병을 얻은 지 오래고  
많은 시 옥같이 쌓여도 가난 구제는 어렵네  
국제사회 돌아봄에 엉킨 실타래 같으니  
누가 평화를 잡아 한 덩어리 이룰까<sup>57)</sup>

### 3. 雲人 宋鴻의 詩와 文

운인은 생전에 자신의 문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원고들을 정리하여「雲人散稿 1」과「雲人散稿 2」로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큰 子婦가 문집 간행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원고들을 숨겨서 운인의 문집은 생전에는 간행되지 못하였고, 운인 사후 20년이 흐른 1969년에 운인의 큰 자부가 운인의 광주고보 수제자인 春圃 邊鎮福에게 원고를 숨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 운인의 詩文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변진복은 당시 동창회 부회장이던 林善鎬에게 운인 문집의 발간을 부탁하여 1972년 5월에 「雲人散稿 1」과「雲人散稿 2」를 원문 그대로 사진 촬영한 복사본 운인 문집이 발간되었다.<sup>58)</sup> 운인이 생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雲人散稿 1」과「雲人散稿 2」는 詩와 文의 구분 없이년대 순으로 배열되었으며「雲人散稿 2」는 1930년에 광주고보를 사직하는 송별식장에서 쓴 시부터 편집되어 있어 교편생활을 사직하기 이전과

57)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권1, 160쪽. <望前信筆 정월 대보름 전에 붓 가는 대로 쓰다>

58) 朝鮮大學校 圖書館. 소장, 『雲人宋鴻先生遺稿』.

이후로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72년에 발간된『雲人宋鴻先生遺稿』는 1백부를 복사한 것 같은데, 발간 후 전국의 도서관, 대학 및 고교, 송씨 문중, 동창회, 동지회의 임원, 학생회관과 전남여고에 있는 광주여학생 독립운동기념관과 각계각층의 사회유지들에게 기증되었다.<sup>59)</sup>

2012년 운인의 고향인 화순군의 지원으로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가 구성되고,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운인의 詩文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또 흩어져 있던 簡札, 行狀, 寫眞 등의 자료들을 추가 발굴하여 2013년 7월에 國譯『雲人遺稿』를 간행하였다.<sup>60)</sup> 國譯『雲人遺稿』는 1972년에 간행된 사진 복사본『雲人宋鴻先生遺稿』를 한글 번역한 것으로「운인유고 권1」을 詩, 「운인유고 권2」를 文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國譯『雲人遺稿』의 뒤에 한문본『雲人遺稿』를 합본하였다.

### 3.1. 雲人 宋鴻의 詩

「운인유고 권1」에는 160제에 426수에 이르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운인 시의 특징은 근대 전환기라는 격변기를 겪었던 사람답게 대부분의 시의 서두에 시를 쓰게 된 당시의 정세,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마치 역사서에 附記하여 놓은 詩처럼 보이는 것이다. 운인은 중요한 사건들에는 그 전말을 상세하게 밝힌 다음 시로써 감회를 풀어내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시의 제목만을 보아도 당시의 역사의 흐름을 읽어 낼 수 있을 정도이다. 운인 시의 제목으로 당시의 정세를 알아보기로 한다.

59)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220쪽, 여타의 다른 기록들에는 1972년에 발간된 『雲人宋鴻先生遺稿』가 모두 1천부가 간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雲人宋鴻先生遺稿 複寫發刊 序文」과 「發刊後記 복사본발간 후기」에 의하면 ‘운인의 유고 2권을 합본하여 복사본 100권을 발간하여 전국 굴지의 도서관에 기증코저 하며 이 복사본은 ‘純漢文 行狀記 添加 原文 發刊 千部’와 ‘한글 翻譯版’ 千部’의 발간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1972년 당시 년내에 발간하려고 했던 운인의 문집 千部 간행 계획은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0)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225-226쪽. 「후기(後記)」.

\* 滯京城未幾聞旅順陷落 旅順, 俄國自清國租借, 設備莊嚴, 爲海軍根據地 서울에 머무른 지 얼마 안 되어 여순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여순은 러시아가 청국으로부터 조차하여 장엄하게 설치하여 해군 근거지로 삼았다.]<sup>61)</sup>

\* 日公使乘勝俄之威向我朝廷勒成保護條約世稱乙巳條約 일본 공사가 러시아를 이긴 위세를 타고 우리 조정을 향해 보호조약을 억지로 성사시킨다.[세상에서는 ‘을사조약’이라 일컬음]<sup>62)</sup>

\* 丁未六月和蘭海牙開萬國平和會議李相高李儁李瑋鍾三人帶 皇帝信任狀直赴現場 정미년(1907)유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려 이상설, 이준, 이위중 세 사람이 황제의 신임장을 가지고 현장에 바로 달려가다<sup>63)</sup>

\* 海牙密使事件日本迫我 皇退位太子踐祚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일본이 우리 황제를 꺾박하여 퇴위시키고 태자가 즉위하다<sup>64)</sup>

\* 八月日本統監勒我廷解散兵隊隊長朴性煥憤死 8월에 일본 통감이 우리 조정을 강압하여 군대를 해산시키자 대장 박성환이 분개하여 죽다.<sup>65)</sup>

\* 戊申義兵處處爭起 무신년(1908)에 의병이 곳곳에서 다투어 일어난다.<sup>66)</sup>

\* 十一月義士安重根射殺伊藤博文逮入大連獄 11월에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사살하여 대련 감옥에 잡혀 들어가다.<sup>67)</sup>

\* 無聲淚日本統監寺內正毅·朝鮮總理李完用, 締結日韓合併條約, 八月二十九日, 讓國詔書發佈 소리없는 눈물[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조선 총리 이완용이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에 나라를 양도하는 조서를 발표하였다.]<sup>68)</sup>

\* 世界戰方劇烈徵發一日甚一日民不能聊生 세계 전쟁이 바야흐로 극렬하여 징발이 날로 심하고 하루도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없었다.<sup>69)</sup>

61) 國譯『雲人遺稿』, 28쪽.

62) 國譯『雲人遺稿』, 29-30쪽.

63) 國譯『雲人遺稿』, 37쪽.

64) 國譯『雲人遺稿』, 38쪽.

65) 國譯『雲人遺稿』, 39쪽.

66) 國譯『雲人遺稿』, 40쪽.

67) 國譯『雲人遺稿』, 41쪽.

68) 國譯『雲人遺稿』, 42-43쪽.

69) 國譯『雲人遺稿』, 126쪽.

\* 四月伊太利元帥무소리被殺獨逸大統領히틀러戰死 歐洲戰終幕 사월에 [이탈리아의 원수 무솔리니가 피살되었고 독일 대통령 히틀러가 전사했다] 구주전쟁이 끝나다.<sup>70)</sup>

\* 世界大戰, 伊太利及獨逸已降, 唯日本抗戰. 美國以原子彈新機, 爆擊日本廣島, 七十萬大都, 一時作灰. 日本大恐慄, 至八月十五日, 日本天皇向米英蘇 [露西亞] 蔣 [中國] 等聯合軍前, 無條件乞降, 以 '나지오', 放送於各地, 我朝鮮, 自此脫羈絆矣. 因感作絕句十二首. 세계대전에서 이태리와 독일은 이미 항복했고 일본만이 항전하였다. 미국이 원자폭탄 신무기로 일본열도를 폭격하여 70만 대도시가 일시에 재가 되자 일본은 크게 겁을 먹었다. 8월 15일에 이르러 일본천황이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군 앞에 무조건 항복을 구걸하여 각지에 라디오로 방송했다. 우리 조선은 이로부터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다. 감격으로 인하여 절구 12수를 짓다.<sup>71)</sup>

위에서 본 시의 제목만으로도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과 국제 정세, 광복까지의 과정과 세태가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 상황을 시에 붙여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근대적 격변기에 처했던 문인의 역사 기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인 문학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운인은 유람과 기행을 즐겨 하였던 만큼 기행시를 많이 남겼는데 운인의 기행시 역시 시에 자신의 기행 여정을 자세히 붙여서 시를 보면 운인의 기행 여정을 여실히 알 수 있을 만큼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부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2. 雲人 宋鴻의 文

「운인유고 권2」에는 疏1, 雜著1, 說1, 序2, 記7, 墓文1편의 文이 수록되어 있다. 흔히 운인을 대표하는 文으로 1904년에 올린 「伏閣疏」를 거론한다. 그러나 「伏閣疏」<sup>72)</sup>는 운인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만

70) 國譯 『雲人遺稿』, 130쪽.

71) 國譯 『雲人遺稿』, 132쪽.

72)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 『雲人遺稿』, 161-166쪽. 「伏閣疏 附○疏非我製 只載我名故低一字記入且非文非詩只係記事者亦低一字 부록○상소는 내가 지은 것

같이 실었을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운인의 글이라고 할 수 없다. 연구자는 운인의 文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글이「孤憤堂顛末記」와「憤狂問答」,「現代新進實用書簡文序」라고 생각하여 이들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운인유고 권2」記에 수록되어 있는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sup>73)</sup>는 운인이 자신의 옛집을 보수하고 칩거하면서 붙이게 된 堂號의 顛末에 관한 기록이지만 주요한 내용은 1909년부터 1930년까지 22년 동안 광주 보통학교, 농업학교, 사범학교, 광주고등보통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사건’으로 학교를 사직하기까지의 교육 여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글이다. 연구자가「孤憤堂顛末記」를 주목하는 것은 이 글이 운인이 직접 쓴 자서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孤憤堂顛末記」에서 운인은 교육혁신운동에 투신하게 된 연유와 망국에 처한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 묘책은 신학문 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신학문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10년 안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10년 기약설>이 결코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망국에 처한 봉건적 지식인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다. 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운인이 부르짖은 ‘10년 기약설’이 운인이 초등교육에 투신한 지 10년이 되는 1919년에 3.1 독립운동으로 발현되고, 운인이 고등교육에 투신한지 10년이 되어가는 1929년에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발현된 것을 보면 운인이 주장한 교육 흥국론이 결코 헛된 주장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운인의 文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운인유고 권2」雜著에 실려 있는 「憤狂問答분광문답」<sup>74)</sup>이다. 「憤狂問答」의 내용은 ‘孤憤生’

이 아니고, 다만 내 이름만 실었으므로 한 자를 낮추어 기입하였다. 또 문장도 시도 아니어서 단지 기사와 관계된 것도 역시 한 자를 낮추었다.

73)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199-206쪽. <孤憤堂顛末記(고분당전말기)>.

74)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운인유고권2」167-182쪽. 雜著, 「憤狂問答」.

이라는 한국 사람과 ‘淸狂叟’라는 청나라 사람이 丙午年(1906) 2월 중순 경에 인천에 있는 여관에서 해후하여 말은 통하지 않지만 글로써 문답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던 기록이다. 문답의 주인공인 ‘孤憤生’은 한국 전라남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고, ‘淸狂叟’는 중국 산둥성 사람으로 자신의 나라를 청나라가 아닌 중국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성명은 밝히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를 ‘淸狂叟’라고 부른다고 소개하고 있다. ‘孤憤生’은 운인이 자신을 지칭하는 별칭이다.

연구자가「憤狂問答」을 주목하는 것은 첫째, 근대전환기와 망국의 혼란기에 봉건적 교육을 받은 봉건지식인의 한 사람인 운인의 시대의식과 시대 대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근대전환기에 나라와 사회를 위한 구국책은 무수하게 제시되었다. 가장 단순하게 ‘보수’와 ‘개화’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론과 주장들이 있었을 것이다. 운인은 신교육과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적극적 개화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조건적인 개화는 아니었다는 것은 망국이후의 운인의 행동 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憤狂問答」에서 운인이 주장한 <40년 준비설>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신교육으로 교육하면 40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운인의 주장은 그대로, 1906년에서 40년이 지난, 또는 합방 후 36년이 지난 1945년에 해방을 맞게 된 것으로 볼 때, 운인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이 주장은 순전한 발표자의 추측인데 발표자는「憤狂問答」이 실제로 문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답의 형식을 빌어 운인이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추측이 타당성이 있다면 이는 근대전환기에 국문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존재한 한문문학의 한 모습으로 연구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운인의「憤狂問答」은 근대국문학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現代新進實用書簡文」은 운인이 1930년에 ‘광주학생독립운동’사건으

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칩거할 때 저술한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내용은 운인이 22년의 교편생활 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나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서간문 작성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쓴 책이다. 연구자가 보는 「現代新進實用書簡文」이 지니는 의의는 본격적인 봉건적 한문교육을 받은 봉건 지식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한문혼용체로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雲人遺稿』에 실려 있는 운인의 글들은 모두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는 봉건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은 봉건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운인은 봉건시대의 교육과 제도, 정치의 존립을 주장했던 대부분의 봉건지식인들과 달리 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교육에 적극 수용적이고 개방적이었다. 운인은 「現代新進實用書簡文」을 저술하면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국한문을 혼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글이 한자용어, 한문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의 굳은 관습을 일시에 근절시킬 수 없는 점에서, 또 재래의 예의와 서식을 가르침에 있어서 자연히 한자용어와 문체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現代新進實用書簡文」이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한문교육세대인 봉건지식인이 적극적으로 한글을 수용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자 사용에서 한글 사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봉건지식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한글수용과정을 보여주는 일례로 연구삼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 4. 結 語

지금까지 國譯『雲人遺稿』에 수록된 詩文을 중심으로 운인 송홍의 시대의식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운인 송홍(1872~1949)의 행적을 통해 고찰한 시대의식과 사회활동은 일 개인의 경우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근대전환기에 생존하였던 봉건 유학자들이 취할 수 있었던 시대의식과 사회활동의 한 단면이기도 하였다.

근대전환기에 처하였던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던 처세의 방법 중에서 운인은 1904년 경성에 올라가서 참여하게 된 상소 운동, 복합소 운동으로 정치의 개혁에 눈을 뜨게 되고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망국적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다. 또 흥미한 국제 정세를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감행한 중국 유람을 통해 신문물의 위력을 직접 경험하고 중국의 명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근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며 망국을 피하는 길은 서양의 신학문을 받아들여 개화해야 한다는 시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운인이 인식한 근대적 시대의식은 이상적인 근대국가의 체제는 군주를 인정하면서 입헌제로 가야한다는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의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정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운인은 또 망국을 피하는 길로 당시의 봉건적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서양의 신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육개혁운동을 주창하였다. 운인은 교육개혁과 신교육의 실시를 봉건적 교육기관인 향교의 시설과 재화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하고 이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은 국가와 지방단체들에서 추렴하여 충당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운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교육개혁운동이 제도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교육현장에 뛰어들어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앞날을 기약하는 국권회복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학생들에게 민족정신과 민족혼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 평가받게 되었다.

운인은 78세로 세상을 떠나기 2년전까지 나라를 빼앗기는 망국의 상황과 나라를 잃어버린 식민지 치하,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광복 이후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자로 애국하였던 교육자였다.

운인은 봉건적 한문교육을 받은 유학자로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한시문을 남겼는데, 운인이 남긴 시문 역시 근대전환기의 우리 문학을 연구하는데 의의있는 작품들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자는 운인의 저작 중에서 1936년 무렵에 집필된「現代新進實用書簡文」을 한문교육세대인 봉건지식인이 적극적으로 한글을 수용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자 사용에서 한글 사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한글수용과정을 보여주는 일례로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문인으로서의 운인 송홍에 대한 소개와 생애의 고찰을 통한 본 연구를 계기로 운인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수집, 시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雲人宋鴻先生文集發刊委員會, 國譯『雲人遺稿』, 和順郡, 2013.7.
- 光州第一高等學校, 光州第一高等學校 同窓會, 『光州高普, 西中, 一高 八十年史』, 1920~2003, 2004.
- 민두기, 「宋鴻선생의 뜻」, 동아일보 淸論濁說, 1976.12.22..
- 윤인송홍선생문집발간위원회, 『윤인 송홍(宋鴻)의 사상과 독립정신』, 시와 사람, 2013.11.
- 이기호 편저, 『光州學生獨立運動正史』, 民族史바로찾기研究阮,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장선희, 『韓國 近代의 漢詩 研究 -姜瑋의 詩 活動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1997.
- 한규무,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雲人 宋鴻의 계몽운동과 민족교육」, 『역사학연구』 제51집, 2013.8, 101-122쪽.
- <http://yoksa.aks.ac.kr/jsp/cc/View.jsp?page=5&gb=1&cd=&cc10id=C0002661&cc40id=왕실도서관디지털 아카이브한국학중앙연구원-헌정연구회>

<Abstract>

A review about the activity aspect of the feudal age  
intelligentia at the turning point of modern ages  
- Focusing on the life of Woon-in Song hong

Chang Sun hee

This review is the consideration about the life of the feudal age intelligentia, Woon-in Song hong, who lived at the turning point of modern ages. Song hong(1872-1949) was the confucianist and his activities were usually performed in near Gwangju. He was a progressive renewing confucianist and tried to recover a ruined country, Chosun, using progressive educational movement which accepted a new education. After 1909, He was an intelligentia who teach students and encouraged them to get a national spirit. Students in Gwangju were strongly influenced by him and especially, he became the anchor of the Gwangju Students Independence Movement which occurred in 1929. The reviewer hopes that Woon-in Song hong's poetry and prose is actively studied by and the estimation about his literature is constructed.

Key words : Woon-in Song hong, the turning point of modern ages, 교육혁신  
운동 Progressive educational movement, new education, Gwangju  
Students Independence movement, Literature

투고일 : 2015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 ~ 8월 13일, 게재확정 : 8월 13일

